

지역경제 견인 나주사랑상품권 '특별할인' 이달 종료

10% 할인 판매액 863억 달성 예산 소진 시 할인을 5%로 하향

소비 촉진을 통해 나주지역 상권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견인했던 나주사랑상품권 10% 특별할인 제도가 국비 등 예산 소진으로 이번 달 종료될 예정이다.

나주시는 지난 3월부터 시행한 10% 할인제도 운영 예산 소진이 임박함에 따라 조만간 상품권 할인을 10%에서 5%로 하향 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단 판매주에 따라 지류형과 카드형 상품권 특별할인 기간은 각각 다르게 적용할 수도 있다.

지난 9월 말 기준 정부 재난지원금·농어민공익수당 등 정책분을 제외한 나주사랑상품권 누적 판매액은 810억원을 넘어선 가운데 이달 내로 10% 할인을 적용 판매액이 목표치인 863억원(지류 653억·카드 210억)에 도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할인율을 하향 조정할 이후부터는 지류·카드형

상품권 구매·충전 시 액면가의 5%만 할인받을 수 있다.

나주시는 코로나19 본격 확산으로 침체된 골목 상권에 소비촉진을 통해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상품권 10% 특별할인 판매를 지속해왔다.

올해 들어 국비 57억원, 지방비 29억원 등 할인을 유지에 필요한 예산 확보에 총력을 기울인 결과 2007년 처음 발행 이후 올 상반기에 역대 최고치인 704억원의 판매고를 달성하기도 했다.

폭발적인 상품권 판매에 힘입어 가맹점 수도 1300개소에서 4100여개소로 크게 증가했다.

지난 해 9월부터는 스마트폰 앱(APP)을 통해 금액을 충전할 수 있는 나주사랑카드가 출시되면서 젊은 세대까지 이용 층이 대폭 확대됐다.

10월 현재 카드형 나주사랑상품권 발급 회원 수는 1만2600여명으로 집계됐다.

나주사랑상품권은 지류·카드 구분 없이 개인별 월 50만원 한도 내에서 농협, 우체국 등 지역 금융기관 55개소에서 신청 당일 구매·발급받을 수 있다.

강인규 나주시장은 "나주사랑상품권은 코로나



나주시청 직원이 농협창구에서 나주사랑상품권을 구매하고 있다. (나주시 제공)

19 위기 속에서도 착하고 똑똑한 소비문화를 정착 시킴으로써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소비 진작에 큰 힘이 되고 있다"며 "앞으로도 소상공인과 소비자가 모두가 행복해지는 상품권 애용에 적극 동참 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나주=김민수 기자 kms@kwangju.co.kr

화순 30대 청년농업인 유기농 요거트 출시 '눈길'



화순군의 30대 청년농업인이 유기농 원유를 활용한 요거트를 출시해 눈길을 끌고 있다.

화순군에 따르면 청년농업인 김정석 씨가 최근 '생산비 절감 및 부가가치 향상 실용화 사업'을 통해 유기농 유기농품인 '온드리목장 유기농 요거트'를 선보였다.

온드리목장을 운영하는 김 대표는 지난해 '생산비 절감 및 부가가치 향상 실용화 사업 경진대회'에 참가해 '유기농 유기농 제품 개발' 사업으로 우수상을 받았으며 시범사업비 1억원을 지원받아 유기농 설비를 구축했다. 이 사업은 우수 소비 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낙농가의 소득증대와 원유의 부가가치 향상을 위해 추진됐다.

김 대표는 유기 축산물 인증을 획득한 원유의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해 직접 생산한 유기농 원유를 활용, 유기농품인 '온드리목장 유기농 요거트 4종'을 개발했다. 원유 생산에서부터 가공까지 철저한 품질관리로 목장과 가공시설 모두 HACCP 인증을 받았다. 김 대표는 앞으로 유기농 우유와 아이스크림 제품도 출시할 예정이다.

김 대표는 "화순을 대표하는 안전한 유기농 유제품 생산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6차 산업으로서 낙농업의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농장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화순=조성수 기자 css@

천억원대 민자유치 '라온 정남진 파크개발' 무산 논란

일부 주민 반대·부지매입 난항 지자체 소극적 행정 주민들 불만

천만 논란에 갈등이 일었던 장흥 특량면 '라온 정남진 파크개발(가칭)'의 민자유치 무산을 두고 지자체의 무성회한 태도가 도마위에 올랐다.

20일 장흥군과 장흥군의회에 따르면 국내 레저 전문 관광개발업체인 (주)라온측이 1700억원을 투자, 안양면 사촌·울산리 일원에 50여만평 규모 관광단지 조성하려는 민자유치사업이 일부 주민들의 반대와 부지매입 난항 등의 이유로 투자자측이 포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라온 정남진 파크개발은 총 1700여억원을 투자 50만평 규모에 골프장(18홀), 쥘라인(900M), 해수온천(수영장), 100실 규모의 관광호텔, 생선회타운 등을 꾸며 오는 2024년말 완공할 계획이었다.

최근 열린 장흥군의회 임시회에서 백광철 의원은 5분 발언을 통해 "일부 주민들이 민자유치사업이 이루어지면 현 군수 낙선운동을 한다는 이유를 내세워 군 당국이 서둘러 투자자측에 사업포기를 종용했다"고 주장했다. 백 의원은 이어 "선거만을 목적으로 책임을 반대주민들에게 돌렸다"며 "백지화 1차 책임은 정중순 군수에 있다"고 덧붙였다.

백 의원의 주장이 SNS 등으로 전해지면서 지역 사회에 논란이 일고 있다.

사업에 대해 기대를 품었던 일부 사회단체와 주민

들은 "비록 민자유치 사업이지만 새로운 관광개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군 당국이 토지 매매가 격 절충과 환경(오염)민원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했으나 그렇지 않았다"며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

관광업을 하는 주민 이모(58)씨는 "관광단지 조성과정에서 발생하는 환경민원은 행정당국이 간접 지원을 통해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다"며 "군 당국의 무성회한 태도가 지역경제 유발효과 기회를 잃었다"고 아쉬움을 토로했다.

장흥 안양면 일원이 민자유치사업지로 떠오르게 된 배경은 (주)라온측이 전남을 대상으로 새로운 관광단지 조성을 모색한다는 정보를 접하고 지난해 8월께 정중순 군수가 제주도 (주)라온측을 방문 투자유치 요청을 통해 본격화 됐다.

지난해 10월 라온측은 회장단 일행이 현지를 답사한 후 장흥군과 사업계획에 따른 기본설계용역 협의과정을 거쳐 12월 3일자로 '사업투자 제안서'를 장흥군에 제출했다.

이후 투자자측은 관광단지 부지에 해당하는 5개 마을과 두차례 주민설명회를 거친 후 올 6월부터 부지매입 작업을 벌였으나 가격 차이를 좁히지 못해 지난 9월말까지 200여 필지 가운데 겨우 3필지만 가계약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골프장과 관광호텔에서 흘러나오는 오폐수로 인한 바다오염과 마을위로 지나는 쥘라인 설치를 놓고 환경단체와 일부 어민들의 반대 민원도 사업의 발목을 잡는 것으로 보인다.

/장흥=김용기 기자·중부취재본부장 kykim@

'광주권 장성로컬푸드직매장' 출하자 11월까지 모집

장성군이 내년 상반기 광주시 북구에 문을 열 예정인 장성로컬푸드직매장 농산물 공급망 구축에 나섰다.

장성군은 '광주권 장성로컬푸드직매장' 출하자를 오는 11월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대상은 장성지역에서 농산물 또는 가공품을 생산 중인 농업인과 가공업체이다.

참여 희망자는 장성먹거리사업단(061-395-7802-5)으로 문의하면 된다.

로컬푸드직매장은 지역에서 생산된 먹거리를 생산자와 소비자가 직접 거래하는 유통시설로 합리적인 가격에 고품질 농산물을 구입할 수 있고, 생산자 입장에서는 판로 확대를 통해 안정적인 수익 창출이 가능하다.

광주권 로컬푸드직매장은 현재 내년 상반기 개장을 목표로 광주 북구 오룡동 일대에 건립 중이다.

해당 지역은 광주 첨단3지구 개발 예정지와 인접한데다 12만명 규모의 소비시장이 형성돼 있어 발전 전망이 높다.

/장성=김용호 기자 yongho@

'기억 꽃 활짝' 담양군 치매안심마을 꽃 나눔 행사

담양군이 최근 치매안심마을 주민을 대상으로 '기억 꽃 무렵' 꽃화분 나눔을 진행했다.

이번 꽃화분 나눔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지친 치매안심마을 주민들에게 활력을 제공하고 아름답고 쾌적한 치매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치매안심마을은 지역 주민이 치매에 대해 올바르게 이해하고 치매환자와 치매가족의 고립방지, 보호가 필요한 치매환자를 마을 안에서 지원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다.

군은 2019년 금성면 석현마을을 1호 치매안심마을로 지정했으며 고서면 덕촌마을과 창평면 사동마을을 대상으로 치매인식개선 및 치매 예방교육과 뇌인지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 등 다각적인 치매 통합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담양군 관계자는 "이번 꽃 화분 나눔 행사가 코로나19로 지쳐있는 주민의 정서적 만족감과 이웃들에게 긍정적인 이미지를 심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담양=노영찬 기자 nyc@kwangju.co.kr



ESS시공전문기업

태양광발전소 부지·시설 고가매입

당사 및 당사관련사업소에서는
소형(100kW~1,000kW) 중형(1,000kW~3,000kW) 대형(3,000kW이상)의
태양광발전시설을 대량 매입중입니다

당사에서는 개발행위(건축물 위 공작물 축조신고)를 무료로 해드립니다. (*건축물 구조진단 비용은 유료)

NB 환경과에너지종합기술(주)

● 매매대상 ●

- 개발행위 허가전 발전소
- 개발행위 허가중 발전소
- 현재 공사중인 발전소
- 현재 운영중인 발전소
- 1차 FIT 종료중 발전소
- 곤충사육장 + 태양광
- 버섯재배사 + 태양광

선로 걱정 하시고 전화주세요!

상담전화

전국대표 1544-1926
010-7614-1055
010-2845-4754